

'선분양 전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속도

광주시, 사업자 '3대 이득' 100% 환수 전제 협상...특혜 논란 원천 차단 타당성 검증·협상 등 거쳐 이익 환수·기부 채납액·분양가 등 결정 될 듯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의 마지막 퍼즐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비공원 시설) 신속 사업이 기존 선분양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특히 특혜 시비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분양으로 생기는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하겠다고 못박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민선 7기 때인) 2021년 11월 (후분양을 내용으로) 체결한 협약을 보면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논란 소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현재의 후분양 방식을 지키고 싶지만,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만 선분양 전환 전제 조건으로, 과거 협약 당시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늘어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아파트 세대수 (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에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재

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은 100%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 같은 조건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의무'로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대로 후분양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제도 변화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선분양, 후분양 변경, 선분양 재전환으로 거듭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고금리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후분양 방식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광주시가 선분양 검토를 결정해 준 만큼 앞으로 남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풍양저수지 민원 등 여러 이슈로 사업 일정이 너무 지연된 점을 고려해 타당성 검증, 협상,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앞으로 선분양을 전제로 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는 물론 광주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한 이익 환수, 기부 채납 액수 등이 협상에서 논의된다.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일단 3.3㎡당 2574㎡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전환해달라는 사업 계획 변경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광주시와 사업자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으며, 다만 선분양 방식을 제외하고 후분양 적정 분양가 등만을 산정한 것어서 선분양을 전제로 새로운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당시 광주시와 사업자 공동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후분양 관련 타당성 검증에선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후분양가로 3.3㎡당 3495만~3822만원이 제시돼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시 서구 급호동과 화정동, 풍양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의 도시 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데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풍양동 '중앙공원 1지구'에서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내 아파트신축 사업은 기존 후분양에서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 채납하는 사업 방식을, 광주시는 2017년 4월부터 2026년 6월 까지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10개 사업지·전체 사업 면적 789만 7000㎡) 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출 1조 달성 '전남 김' 새 활성화처리제 개발 전력

서울대 연구진, 진도서 현장보고회

전남도가 수산물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조원을 돌파한 김 성장을 돕는 최신 활성화처리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용역을 맡아 진행중인 서울대 연구진이 23일 어민들이 있는 진도 수품항에서 현장 보고회를 열고 개발중인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양식 어업인의 40년 숙원인 새로운 김 활성화처리제 개발 용역을 맡은 서울대 연구진은 이날 국내 최대 물김 위판장인 진도 의신면 접도 수품항에서 '김 활성화처리제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현장 보고회에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양동

욱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주흥호 수협중앙회 전남 지역본부장, 한형구 국립해조류연구소장, 김기영 진도군수협장, 이홍재 고흥군수협장, 박병찬 해남군수협장, 임종섭 김생산어업인연합회장과 각 지역별 지회장, 어업인 등 50명이 참석했다.

기존 활성화처리제는 시간이 길고 효과가 떨어져 어업인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전남도는 지난 2022년 서울대, 수협, 김 생산어업인단체 등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 신제품 개발에 나선 바 있다.

1차년도 개발된 제품은 무기산 대비 파래 80%, 요각류 140%를 제거하고 30초 내 사용 활성화처리제 99.9% 중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진도에서 김 실험어장을 관리하는 박연환씨는 "올해 개발 중인 물질로 50줄을 양식하고 있는데 기존 처리제를

사용하는 줄과 비교해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양식 시기별로 농도와 사용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어업인이 선호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 중인 식품용살균제 성분의 활성화처리제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물질이다.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주로 수처리 살균소독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포자 상태의 균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명 부지사는 "추운 날씨에도 김 위판 현장에서 팔목할만한 연구성과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직접 듣고, 보고, 확인했다"며 "무엇보다 김양식 어업인이 만족하고 찾을 수 있는 김활성처리제를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석면 피해자·유족 50여 명 지원... 18억 투입

광주시는 "올해 석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제비 등 총 26억60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μm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치료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피해구제급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석면피해 구제시스템(1833-7690)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월 5만→7만원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3일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보다 높고, 평균 사용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교통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사용액은 2021년 월 2만5000원에서 지난해 5만9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미 대상자의 76.7%가

지원 한도 5만원이 넘는 교통비를 지출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처음 시행됐다.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한 후 우린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에 발급받으면 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7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연합뉴스

전남도, 귀농 농업 창업·주택 자금을 저금리 대출

연 1.5% 최대 3억7500만원...도시민 유치에 555억 투입

귀농해서 농업 분야로 창업에 나서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새로운 전남도민에게 1인당 최대 3억 7500만원을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준다. 전남도는 맞춤형 도시민 유치 활동과 함께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해 꾸준

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올해도 15억원을 투입해 마을 주민 주도로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창업 자금을 1인당 4000만원씩 60명에게 2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민과의 갈등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에도 26개 마을에 4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치 캠페인, 박람회 참가, 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 홍보활동과 지역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다양한 귀농어귀촌 정책을 통해 10년 연속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을 유입시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겸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뭣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공 고

광주광역시 2023년4049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명 박영주(1995. 10. 22.생)
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동로 53
최후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동로 53 (학동)
사 망 일: 2020년 08월 06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은 2024년 03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주 소 전남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남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4년 1월 2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공 고

광주광역시 2023년406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명 최윤수(1984. 2. 17.생)
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동로 53
최후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신동로 53 (학동)
사 망 일: 2020년 08월 08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은 2024년 03월 26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주 소 전남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 (미래타워)
신고처 전남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 (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4년 1월 2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공 고

아래의 각 상속재산관리인선임판정구사전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명 표시
피 상 속 인: 유하나
생년월일: 891224
사 망 일: 2024년 1월 24일
등록기준지: 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185
최후 주소: 전남목포시대평로14-24 공평해탈원(신동)
사 망 일: 2023. 9. 12.

2. 위 각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표시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주소 및 신고처: 목포시 정미로 22, 302호
(목양동, 새광명초빌딩) ☎061-242-3000

2024년 1월 24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명 광양(1953.12.28~1933.12.28)
· 피상속인: 명 김연희(1953.12.28~1933.12.28)
(사망, 피용자유종류미지)

피상속인 명 광양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 승인을 청구하였던 목적지인 2024년 1005호로 신청하여 2024년 1월 23일 집회 인용결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판사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재신고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기간이 지난 후 재신고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24일

· 상속인: 1. 광양(380402-2XXXXXX) 강동서 인수번호 79-14, 103부 1001호(유종류 미지)
2. 광양(435153-1XXXXXX) 홍기우 인수번호 1001호(유종류 미지)
3. 광양(460207-2XXXXXX) 목포시 영산559번길 16(91동) 4088(2인승, 전안공마을주공아파트)
4.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5.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6.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7.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8.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9.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10. 목포(59090202-1XXXXXX) 목포시 남양222번길 15, 103부 503호(유종류 미지)

· 신고기간: 2024. 1. 24. ~ 2024. 4. 4.
· 재신고대상: 상속인 5. 권익희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종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